

양계 안데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정부 축산부문 예산 더 늘려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안을 1조5천8백 8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금년도 보다 20.3%의 2천7백억원이 증액된 액수로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예산안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선진화 경제대책에 66%인 1조5백여억원을 집중투자해 상대적으로 축산부문 등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축산업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축산부문 예산으로 2백45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은 30%에도 미달하는 68억5천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축산부문 예산 79 억9천만원에도 못미치는(86%) 수준에 이른다.

내년도 일반예산 규모를 19% 늘리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낙후된 축산부문의 예산을 샥감한 처사에 대해 축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지가 의심스러워진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예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정의 주

체인 농림수산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깎은 처사에 대해 농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다른 부문과 달리 농림수산부문은 1~2년간의 단시일내 집중투자로 기틀을 잡을 수는 없다. 선진농업국이 다진 오늘의 농업기반은 장기간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오히려 그간 농업부문에 너무 많은 지원에 대해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는데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심각한 인력난, 축산폐수처리, 기계화 시설 등 경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데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이르러 있어 이번 예산삭감은 국민 식량자원공급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축산업을 경시하는 처사로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한 이때 달걀집하장 설치비용(5억원)과 가축방역 사료 시설 설비자금 등 정부 여야정당간 성의있는 재검토를 기대하여 본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축산장기발전대책에서 앞으로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그간의 생산지원에서 가축개량, 유통개선지원, 전·부업 축산육성 축산업

의 국제경쟁력 확보(수출산업 육성) 등 기본전략에 의해 축산업 발전을 꾀하기로 하였다.

이의 실현 뿐만 아니라 동물성단백질 공급으로 국민보건을 책임질 축산보국을 위해서 축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축산부문 예산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육계불황 장기화

병아리값이 수당 4백원선에서 유지되는데 반해 육계값은 kg 당 550원~600원을 형성하고 있다.(9월말 시세) 얼마전 1천3백원을 오르내리면서 장기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던 육계가격이 9월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며 단기적으로는 회복될 전망이 안보인다.

이는 작년 하반기에 이어 계속되는 호황(?)에 신규생산자 급증과 병아리 숫자증가로 생산과잉 현상이 뚜렷한데 특히 소비가 둔화되는 시기인 말복이 지나면서도 통계상 숫자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육계불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부화업계와 육계생산자가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조기에 중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조기출하로 생산감축, 입추자제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육계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호·불황을 거듭하면서 연중 계절별로 가격의 등락진폭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어렵게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 투기화로 치달아 육계생산자들중 사육시기를 잘못타서 값폭락으로 정든 생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외상미수금 등으로 야밤에 농장을 훌쩍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우회, 분과위원회 등 육계생산자 모임에 2~3년을 주기로 구성원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곤 하였다. 망해서 물러나면 그 자리를 신규업자가 채우곤 한것이다. 도계품의 유통, 닭고기 와식산업의 발전, 식생활관습의 변화 등으로 최근 닭고기 소비가 늘면서 생산도 과거에 비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닭고기 생산에 연관된 병아리, 사료, 약품, 도계장, 가공, 유통 등 7~8개 산업이 제각기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다가 한 계열주체 하에서 일관된 경영체계로 관리되면서 최종산물 생산비의 절감이 이루어져 값싼 닭고기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유통, 소비에 있어서도 계열화된 통합경영체계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사료산업도 재편의 움직임이 보이고 계열화생산체계에 뛰어들 분위기이다. 소비확대의 가능성에 큰 닭고기산업이 미래의 안정화된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모든 육계관련인의 의지가 모아져 양계협회내에 비공식기구로 육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학계, 생산자, 계열주체, 상인 및 외식업체 등 연관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업종간 상호 이해조정과 방향정립을 위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육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생산 및 가격의 안정 △정책간의 △유통구조개선 △소비촉진 및 국제경쟁력향상 등 산업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하며 계열화생산체계 발전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된다.

생산자-계열주체간의 표준계약서 작성,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활동 등 육계산업발전의 핵이 되는 전문기구로 발전할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육계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성 없이 생업을 중단하고 다음 입추적기를 점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것 같다.

연중 비수기인 요사이 닭생산 물량이 여름철 복중성수기 물량을 웃돌고 있어 가격폭락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화장의 종계노계 도태, 생산자 입추중단으로 불황을 조기에 마감하자.